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53 | 2022 August

넘실 넘실

물의 가치를 활용한 물특화로 대한민국 ESG 경영 선도

K-water는 국민의 물안전과 물복지의 해법으로
물특화 ESG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ESG의 가치와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K-water는 ESG로 '넘실넘실' 떠오르고 있습니다.

K water

공기업 1군 최초로 ESG 경영을 선언한 K-water는
올해 '물-에너지-도시 그리고 ESG' 넥서스를 경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 사업 분야에서 ESG 가치와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K-water는 환경과 사회를 지키는 물 종합 클린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ESG 경영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water.or.kr
물, 자연 그리고 사람

ilovekwater

#kwaterESG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ESG를 검색하고
<kwaterESG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kwaterESG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ESG를 검색
→ <kwaterESG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기
→ ESG 경영을 선도하는 K-water에게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 이벤트 자동 응모 완료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접수 마감일 8월 25일

선물 발송일 9월 15일경

※ 9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kwater.or.kr 물, 자연 그리고 사람

#ESG경영위원회

#물특화ESG

#지속가능경영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2. 08 | Vol. 653

08 **제로여행**
여름날 하루쯤 김천부항댐 어때요?
이제야 '반짝' 뜬 김천

14 **제로상점**
무엇이든 들고 와서 담아 가세요
김천 <들담>

18 **제로푸드**
토종 돼지를 복원해 더 특별한
지례 흑돼지

20 **무해한 사람**
기업의 방식으로 환경을 생각하다
박근우 닥터노아 대표

24 **지구보고서**
기후위기,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26 **내가 그린 도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녹색 국가 도시 1위
덴마크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2년 8월 1일
통 권 653호
발행인 박재현
편집인 장훈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홍보실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취재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 운동가라야만 지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애향심과 애국심도 좋지만, 이제 애구심(愛球心)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돼 있으며,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도 번역을 지원합니다.

30 **두잇두잇**
처치 곤란했던 아이스팩의
놀라운 변신

32 **건강처방전**
여름 단골 질환, 냉방병주의보

34 **수(水)타벅스가 간다**
시원한 음료 마시고
우리 함께 힘내요!

38 **K-water의 수**
ESG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는
K-water

40 **K-water 리포트**
K-water는 물의 가치를 높여
대한민국 ESG 경영에 앞장섭니다

44 **K-water 사전**
K-water는 이렇게 ESG를 선도합니다

46 **어느 멋진 날**
그림 그리기 좋은 날이에요
전남서남권지사 직원 4명의
유화 그리기

"국민에게 물로 행복을 드리는 것이 K-water의 변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ESG 경영으로 물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50 **마음상담소**
프로 일잘러의 고민
'일을 잘하니 일이 자꾸 늘어나네?'

52 **퀴즈있수다**
우리가 마시는 물, 수돗물이 궁금해!

54 **K-water 포커스 ①**
대한민국 물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상생협력을 이끌다

56 **K-water 포커스 ②**
대한민국 그린수소 시대를 열다

58 **News**

60 **방울이와 DIY**

여름날 하루쯤 김천부항댐 어때요?

이제야 '반짝' 뜬 김천

호수에 이끌려 경상북도 김천시로 갔다. 반영으로 깊어지다 은빛으로 너울대고, 다시 파랑으로 찰랑대는 호수가 있었다. 김천부항댐의 이야기다. 김천부항댐은 공존과 상생을 키워드로 한 친환경 다목적댐이다. 그 댐을 빙 둘러 걷는 수변둘레길이 "좋아요"라는 소식에 냉큼 찾은 길이다. 알고 보니 김천부항댐은 지구에 '숨' 한 모금 더하는 '착한 풍경'들로 가득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 김천으로 지금 떠나보자.

글·사진_ 이시목(여행작가)

“댐이 이렇게나 예뻐도 됨?”

감히, ‘가장’이란 단어를 붙이겠다. 김천부항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즐길거리 풍성한, 그러면서도 친환경적인 댐이다. 혹자는 “댐이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가보면 안다. 작게는 상상력 기발한 조형물부터 크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길고 처음인 것들이 김천부항댐 곳곳을 채워 시선을 당긴다. 아니, 김천부항댐이 품은 풍경부터가 남다르다. 마치 푸른 숲 한가운데 있는 수반처럼 산들 사이 오목한 자리에 맑고 푸른 물이 그득하게 담겨 예쁘다. 리아스식 해안처럼 들쑥날쑥한 호안(湖岸)도, 호안의 생김대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순환일주도로도, 그 길을 따라 펼쳐지는 초록의 산림도 댐만큼이나 곱다.

“고·초·장 투어 해보실래요?”

김천부항댐은 크지 않다. 총 저수량 5,400만 톤에 유역면적 82㎢ 규모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임하댐의 1/10가량 크기다. 하지만 댐의 크기를 넘어선 댐으로 이미 정평이 났다. 2013년 조성 당시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을 정도다. 그 핵심에 ‘관광자원’과 ‘공존’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 높이의 레인보우 짚와이어와 최초 완전 개방형 스카이워크, 최장 길이(256m)의 출렁다리가 김천부항댐을 전국적인 여행 명소로 만든 트로이카다. 일명 스릴 만점 짜리 ‘고·초·장(최고, 최초, 최장의 두 번째 음절에서 따온 말) 투어’ 코스다. 여기에 오토캠핑장과 레저시설, 물놀이장 등을 갖춘 산내들공원이 더해지고, 최근엔 체류형 휴양 시설인 ‘생태휴양펜션’까지 가세하면서 김천부항댐은 즐길거리가 한층 더 많은 곳이 됐다. 이것이 이 여름, 우리가 하루쯤 콕 찍어 김천부항댐에 가야 할 이유일 것이다.

“걸으며 공존의 가치를 되새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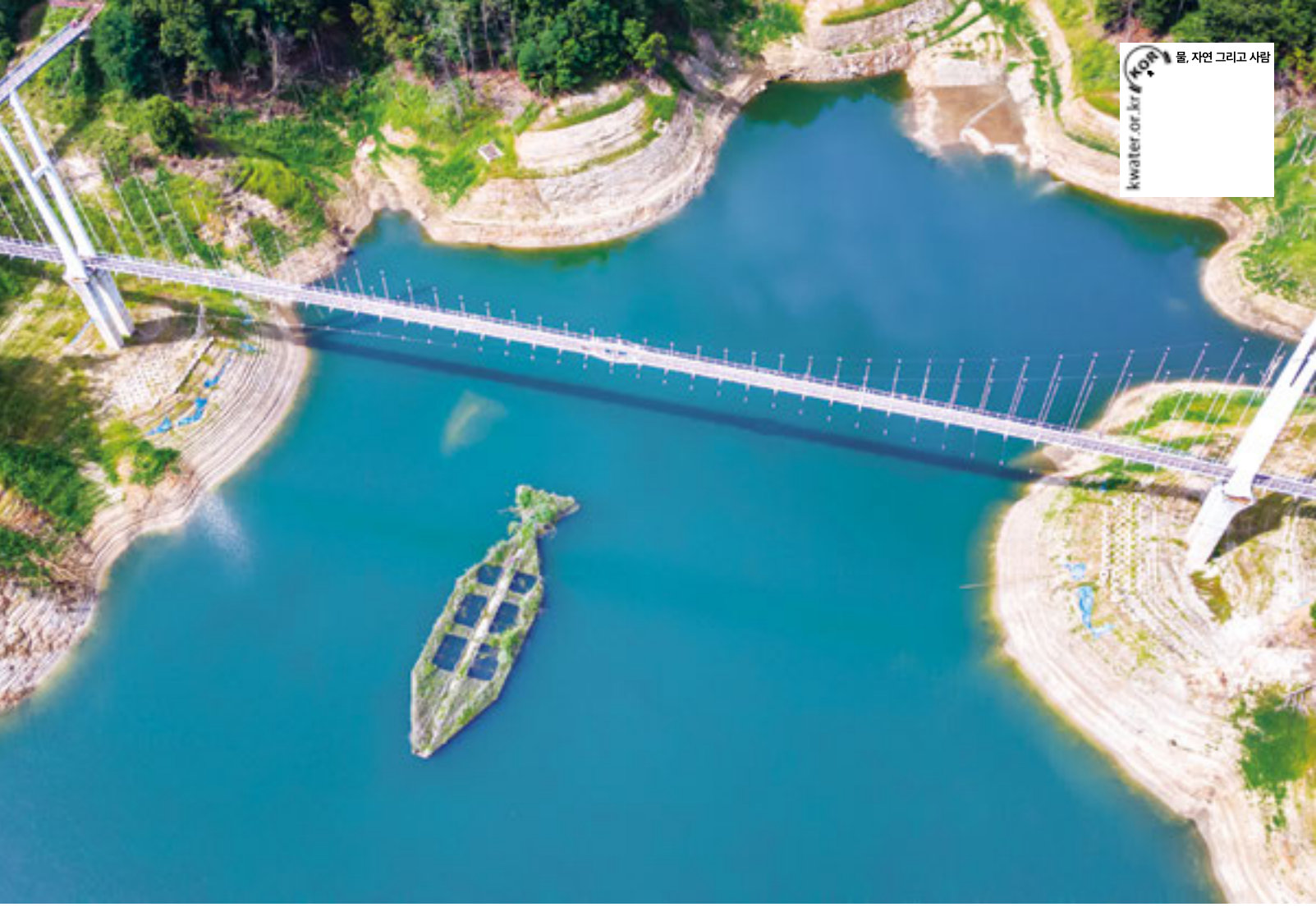
속도와 풍경은 반비례한다. 빠를수록 풍경은 흐려지고, 느릴수록 풍경은 또렷해진다. 김천부항댐을 댐 이상의 댐으로 만든 또 하나의 키워드인 공존은 천천히 걸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자. 김천부항댐에는 호수의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흐르는 수변 둘레길이 조성돼 있다. 물문화관에서 댐 제방을 지나 출렁다리(어류산란장) ~ 레인보우 짚와이어 ~ 생태휴양펜션 ~ 지좌교 ~ 부항대교 ~ 유촌교를 경유해 다시 물문화관으로 이어지는 8km(약 2시간 소요) 길이의 원점 회귀 코스다.
이 길에 김천부항댐의 공존 가치와 문화예술 콘텐츠가 녹아 있다.

여행고수가 알려주는 여행지 이야기

직지사

직지사는 조용하면서 단정한 사찰이다. 규모가 큼직큼직한 절인데도 요란하지 않고 차분해, 자분자분 거닐기 좋다. 특히 이맘땐 배롱나무가 단청보다 붉은 꽃을 피워 거니는 맛을 더한다.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게 생긴 삼층석탑 4기와 비로전도 눈여겨봐야 할 볼거리다. 특히 1천 불의 동자승이 안치된 비로전이 직지사 관람의 백미다. 천 불 중 생김새가 다른 불상 하나가 있으니 찾아볼 일이다.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문의 054-429-1700~4



66
김천부항댐 수변둘레길에서는 걷는 내내 '공존'이란
키워드를 놓을 수 없었다.
자연과 지구에 조금 더 무해한 여행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된 듯도 하다.
99

직지사와 이웃한 사명대사공원은 직지사에서 출가한 사명대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의 랜드마크가 평화의탑이다. 높이 41.5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평화의탑은 화려한 단청 없이 천연 옻칠로 탑을 마감해 나무의 결과 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어둠이 내릴 무렵 목탑을 환하게 밝히는 야경과 교교한 달빛을 품은 여름밤 풍경이 눈부시고, 목탑 앞 북암지 수면에 어린 반영도 매혹적이다.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30

평화의탑

방초정

방초정은 2층 누각에 팔각지붕을 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장방형 건물이다. 보기엔 일반적인 누정의 형태로 보이지만, 2층 중심부에 한 칸 크기의 온돌방이 있는 구조다. 들어열개문을 두어 계절에 따라 정자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한 점이 매력. 덕분에 마루와 방이, 건물의 안과 밖이 분리되거나 통합된다. 정자 앞 최씨담도 아름답다. 배롱나무 붉은 꽃그늘이 내린 이 담(潭)엔 두 여인의 슬픈 사연이 담겨 있다.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1길 41

재기발랄한 조형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콘텐츠는 물문화관 주변 공간, 이를테면 취수탑 표면이나 안전펜스·지붕·암반 등 예상 밖의 지점에 집중돼 있고, 지역주민 혹은 동식물과의 공존을 위한 시설들은 댐 전체 공간에 고루 퍼져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댐사면이다. 댐 주변지역에 자생하는 수목을 사면 높이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이식해 멀리서 보면 그저 푸른 언덕이거나 알록달록한 꽃밭으로 보인다. 덕분에 사람도 동물도 와서 꽃밭을 즐기게 됐다. 동식물의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들도 둘레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여수로(댐 수위 조절을 위한 홍수 방류 시설)의 좌·우안이 생태이동통로로 연결됐고,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수달 서식지가 댐 여러 곳에서 보인다. 출렁다리 아래에서 만나는 어류산란장과 댐 상·하류에 있는 인공습지도 반가운 볼거리다. 가끔은 수질 개선을 위한 태양광 물순환장치가 파란 수면 위에서 빛나기도 한다. 그래서였을까. 김천부항댐 수변둘레길에서는 걷는 내내 '공존'이란 키워드를 놓을 수 없었다. 자연과 지구에 조금 더 무해한 여행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된 듯도 하다.

찾아가GO, 체험하GO

문화와 자연이 함께 하는 김천 여행 스폿

김천부항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즐길거리 풍성한, 그러면서도 친환경적인 댐이다.

댐과 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간이자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공간이다. 2층 상설전시실에선 물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즐기며 배울 수 있고, 친환경 에너지 생성 과정을 체험할 수도 있다. 4층 전망대도 필수 관람 코스. 이곳이 김천부항댐 조망 포인트다.

무엇이든 들고 와서 담아 가세요

제로웨이스트 상점
김천 〈들담〉

최근 기후변화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거나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개념의 '제로웨이스트(ZeroWaste)'는 지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는 생존 활동의 일환이다. 김천 구도심에 있는 <들담>도 그런 곳 중 하나다. 지구에 무해한 소비 활동은 돕고 자원 선순환 소비는 북돋우는 곳이다. '들고 와서 담아 가다'라는 뜻의 이름처럼 '탈(脫) 플라스틱'을 위한 '리필 라이프' 확산 활동에도 진심인 공간 <들담>을 찾았다.

글·사진_ 이시목(여행작가)

김천 유일의 제로웨이스트 상점

"이런 거 좋아요. 헤질 때까지 오래 쓰는 거." 곳곳이 헤져 다 낡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바꿔야겠다는 말에 류은정 대표가 말했다. 그는 김천 유일의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들담>의 운영자다. 그는 '물건의 수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눈치였다. 낡은 물건의 쓸모에 대해 말하는 이가 처음이라 이유가 궁금했다. "반가워서"라는 말과 함께 "물건이 쓸모를 다할 때까지 오래 사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의 구매를 줄이는 일은 제로웨이스트 활동에 있어 꽤 중요한 일"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특별한 대화 같지만 <들담>에선 이 같은 대화가 일상이다. 지구에 무해한 친환경적 소비를 지향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들담>에선 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들담>은 어떤 방법들로 쓰레기를 줄이는 걸까? 구체적인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법은 크게 4가지다. 대부분의 '제로웨이스트 숍'처럼 <들담>도 포장 없는 가게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70여 가지의 친환경 제품도 자연유래 성분을 활용하거나 화학 성분을 최소화해

66
기후위기 대응은 다른 사람들에 기대면 안 되고
'나부터' 실천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 변한다고 뭐가 변할까 싶지만,
나로부터 커져 가는 시너지가 있어서
분명히 누군가도 같이 변하거든요.
다 함께 변하길 소망합니다.
99

버려지더라도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들이다. 세재 같은 대용량 제품은 다회용기에 리필해갈 수 있도록 소분해 판매하고, 분리배출이 쉽지 않은 멸균팩을 비롯한 실리콘유·병뚜껑·크레파스·빨대 등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거점을 두어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 알록달록한 'S자' 고리가 수거한 병뚜껑을 재활용해 만든 대표적인 제품이다. <들담>은 또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서 좀 더 나아가 적극 모으고 줍는 플로깅 활동도 정기적으로 연다.

류은정 대표는 "'용기내 챌린지' 등이 확산되면서 <들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라며 "가장 좋은 건 집에 있는 다회용기나 장바구니 등을 들고 오는 것이지만, 지나가다 들러도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탕 소독된 재활용 용기와 종이가방을 준비해 두고 있으니 편하게 방문하세요"라고 환하게 웃었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interview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 재활용의 비중은 높이는 '제로웨이스트' 활동, 김천에서 확산시켜 보고 싶어요."

<들담> 류은정 대표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제품들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나요?

수입 제품보다는 국내 제품 위주로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업사이클링 제품이 특히 많아요. 종류도 자잘하게 다양해서 70여 가지 있습니다. 지인들은 "규모에 비해 너무 많지 않냐"라고 하는데, 주변에 다른 제로웨이스트 숍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 오시더라도 취향대로 마음껏 고르실 수 있게 일부러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숍을 열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고등학생일 때 처음으로 '기후가 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심하게 뜨거웠고, 겨울에는 무섭다 싶을 만큼 폭설이 자주 내렸죠. 막연하게 이상하다고만 느끼고 있었는데,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하고부터 환경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지구온난화'였던 키워드가 지금은 '기후위기'가 되었고,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때부터 혼자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고,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질 때쯤 제로웨이스트 숍을 알게 됐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김천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하고, 1년 사이 <들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건 조금씩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거활동에 대한 반응은 늘었어요. 그리고 1년 사이 '김천바꾸어스' 팀이 꾸려졌습니다. 저와 환경운동을 함께 하는 친구들이 생긴 건데요. 수거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캠페인 등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제로웨이스트 활동은 아무래도 그 효과가 미비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기업이나 정부를 변화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은 다른 사람들에 기대면 안 되고 '나부터' 실천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 변한다고 뭐가 변할까 싶지만, 나로부터 커져 가는 시너지가 있어서 분명히 누군가도 같이 변하거든요. 다 함께 변하길 소망합니다.

(들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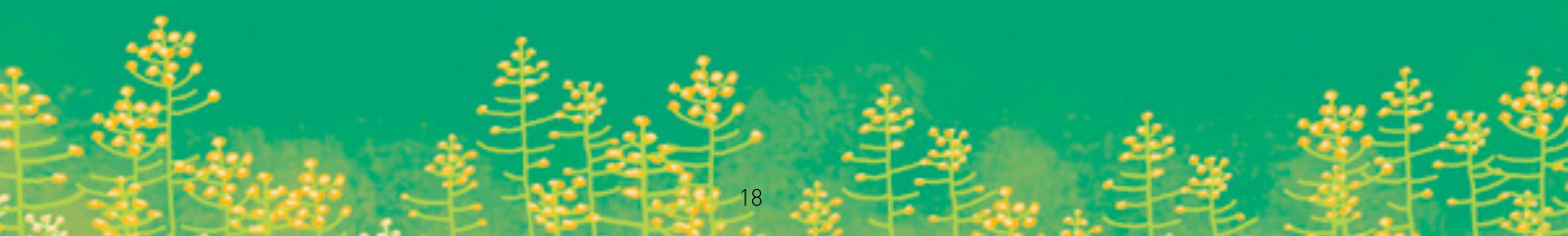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공원길 35

문의 0507-1338-7746

토종 돼지를 복원해 더 특별한 지례 흑돼지

김천이 '흑돼지'로 유명하다고? 흑돼지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지만, 김천시 지례면 작은 마을에서도 흑돼지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 토종 돼지의 종자를 복원한 귀한 지례 흑돼지를 지금 만나러 가보자.

글_ 최행좌 출처_ 김천시사



> 예부터 지례 흑돼지는 산간지대에 방사하며 보리등겨 등을 사료로 줘 덩치는 일반 돼지의 3분의 1 수준으로 자그마하지만 지방 분포가 적고 육질이 쫄깃쫄깃해 고기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김천의 역사를 품은 지례 흑돼지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도로를 따라 늘어선 김천시 지례면은 흑돼지의 본고장이다. 원래 우리나라 토종 돼지는 '꺼먹 돼지'라고 해서 검은 털을 가진 돼지다. 피부색은 평범하지만 털색이 까맣고 체구는 작은 것이 특징이다. 특유의 담백하고 쫄깃한 맛으로 임금님 진상품에 오르기도 했다.

흑돼지는 외래종과 달리 순흑색에 성질이 온순하며 영리한 데다 다산으로 한 번에 10 ~ 15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 사육하기도 쉬워 <조선농업편람>에 따르면 '농가에서 흑돼지를 기를 때 울타리를 쳐서 방사하거나 말뚝을 매어 길렀으며, 물이나 농산물 부산물 등을 먹이로 주었다'라고 기록돼 있다.

일제강점기 토종 돼지는 경제 가치와 수율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량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 이후 흰색의 요크셔와 랜드레이스, 갈색의 듀록 등이 경제성을 이유로 주로 사육되면서 흑돼지는 도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지례 흑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1990년대 초반부터 김천시와 지례면이 합심해 흑돼지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토종 흑돼지 바람'이 불었고 강원도와 제주도, 지리산 일대에서 '흑돼지의 부활'을 주도했다. 지례 흑돼지도 그 바람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작지만 맛은 최고라는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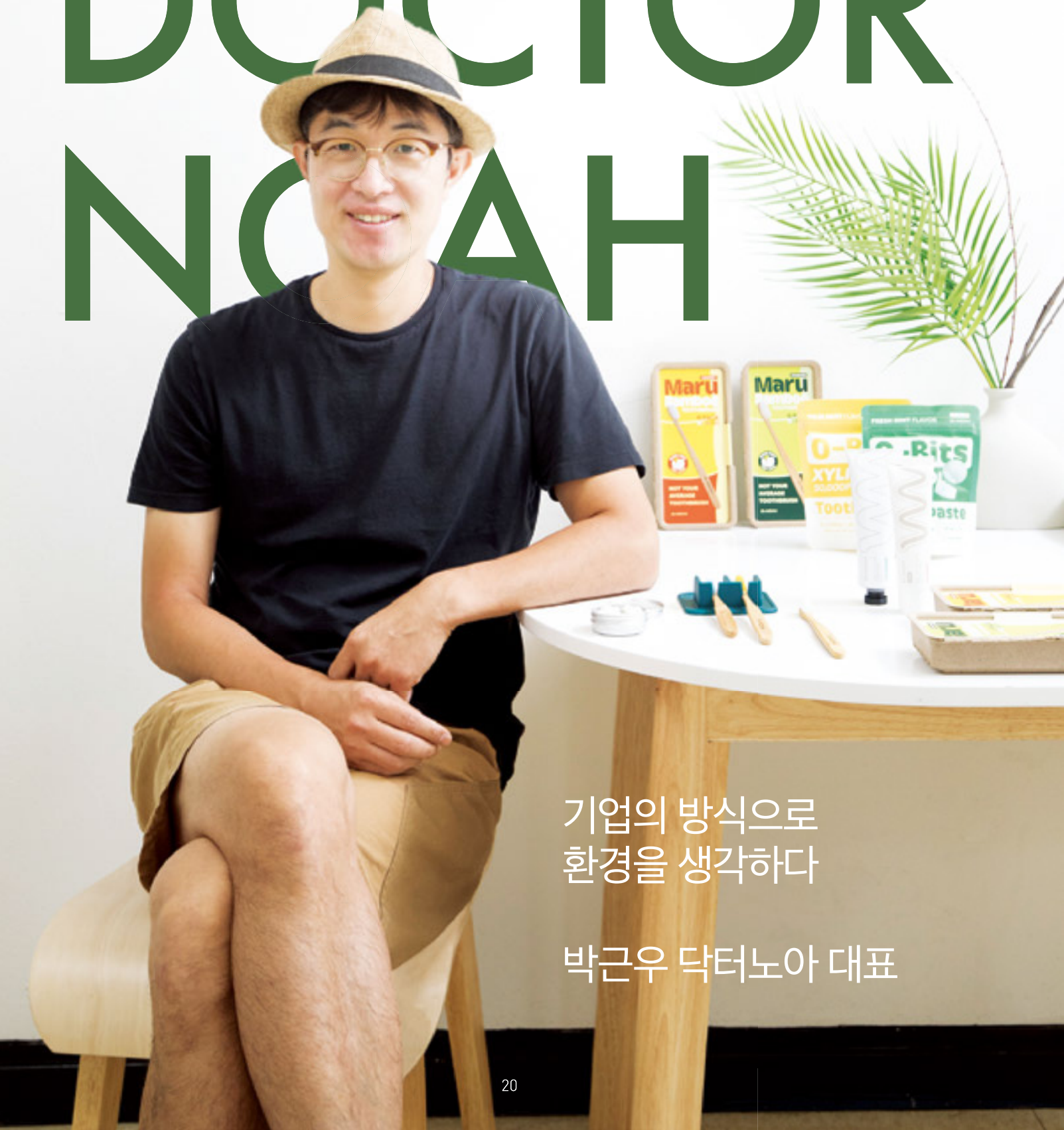
지례 흑돼지의 가장 큰 장점은 맛에 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자란 덕분이다. 지례면은 지형적으로 추풍령과 황악산, 민주지산을 기대고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 옆으로 감천(甘川)이 흐른다. 감천의 지하수를 먹고 자란 지례 흑돼지는 철분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또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다.

예부터 지례 흑돼지는 산간지대에 방사하며 보리등겨 등을 사료로 줘 덩치는 일반 돼지의 3분의 1 수준으로 자그마하지만 지방 분포가 적고 육질이 쫄깃쫄깃해 고기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생으로 썰어놓은 지례 흑돼지는 결이 섬세하고 광택이 난다. 이런 고기는 탄력이 있어 구우면 육즙이 잘 잡히고 단단해 씹는 맛이 좋다. 한마디로 '차지다'는 표현이 딱이다. 다른 돼지고기와 달리 지례 흑돼지는 껍데기와 비계를 그대로 구워도 기름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쫀득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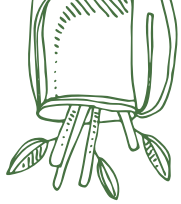
현재 지례면에는 많은 지례 흑돼지집이 있다. 원육이 워낙 좋다 보니 어느 곳을 택하더라도 만족스럽다. 메뉴는 거의 2가지다. 소금구이 혹은 양념구이. 마블링이 잘 된 흑돼지의 목살만 떼고 두툼하고 큼직하게 썬 다음 굵은소금을 뿌려 구워 먹는 소금구이는 육즙이 풍부하고 육질이 고소하다. 껍질째 나오는 삼겹살과 목살·삼겹살을 반씩 섞은 양념구이는 진한 풍미를 자랑해 전국에서 그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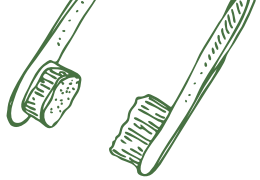
DOCTOR NOAH



기업의 방식으로 환경을 생각하다

박근우 닥터노아 대표





자연에서 제공받아 과학으로 만들어낸 맞춤 오랄 케어 솔루션. 치과의사이면서 국제구호활동가, 사업가인 '닥터노아'의 박근우 대표의 빈곤, 환경, 건강에 대한 처방은 친환경 대나무 칫솔이었다. 지구별에 안착한 이상, 어떻게든 이웃과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다정한 '지구의 벗'을 만나봤다.

글_ 임지영 사진_ 김범기

"대나무를 소득 자원으로 바꾸려면, 그것도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그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구글에 '뱀부 프로덕트'를 검색하다 보니 대나무 칫솔이 나오더군요. 플라스틱 칫솔보다 가격 경쟁력 있으면서 품질 좋은 대나무 칫솔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빈곤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한 칫솔을 만들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플라스틱 칫솔 회사들이 대나무로 칫솔을 만들 수 있게 해법을 제공하는 솔루션 제공자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우연히 읽은 한 편의 논문이 바꾼 삶의 나침반

우연이 필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찰나의 섬광 같은 각성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닥터노아의 박근우 대표가 그랬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치과의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2008년부터 남부 아시아와 중부 아프리카의 빈곤지역들에서 국제구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에티오피아 훌라에 갔다가 대나무 숲에서 살아가는 빈곤한 소수민족을 만나게 됐다. 대나무, 그러니까 자원으로서의 대나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때부터였다. 이후 대나무 생산지의 빈곤 문제를 다룬 논문들을 찾아서 읽던 중 베트남 최대 대나무 생산지의 삶에 관한 충격적인 논문을 접하게 된다. "베트남 탕호아성 북서부 지역의 대나무 산지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월평균 가족 소득은 68달러밖에 되지 않고 지역민들은 빈곤으로 인한 모든 폭력적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 풍부하지만 잘 이용되지 않는 자원을 소득자원으로 만들어 준다면 16만 3,000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문제를 해결하고 16만 3,000명을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 인생을 걸어도 좋지 않을까? 난생처음 심장이 두근거림으로 요동쳤다.

그가 첫 번째로 당면한 문제는 대나무를 소득 자원으로 바꾸려면, 게다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그게 뭘까 하는 것이었다. 구글에 'Bamboo products(대나무 제품)'를 검색했다. 지금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많은 대나무 상품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속에 대나무 칫솔이 있었다. "제가 치과의사니까 칫솔은 잘 만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데, 그땐 사업을 한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웃음). 아무튼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썩지 않는 18g의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대나무 칫솔

그는 세상을 구하는 작은 손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닥터노아'를 설립했다. 닥터노아는 기업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 벤처'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대나무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환경뿐 아니라 빈곤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자 했다. 대나무 칫솔의 제조과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목공 작업과 비슷하다. 대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고 연마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식모를 하면 칫솔이 만들어진다. 우여곡절 끝에 생산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잡은 지금의 제조법을 찾았다. 닥터노아는 지난해 대나무 칫솔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다. 지금까지 대나무 칫솔로 대체된 플라스틱 무게는 약 1만 9,000㎏이다. 닥터노아는 100만 개의 대나무 칫솔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에서 대나무 110톤을 수입했다. 이를 통해 약 1,350명의 빈곤층 대나무 농부가 중위소득자 수준의 수입을 올렸다. 닥터노아의 대나무 칫솔은 디자인도 뛰어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Reddot', 'Good Design' 등에서 수상했다. 처음 베트남 탕호아성의 주민 16만 3,000명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겠다는 거창한 계획에서 대나무 칫솔 사용을 권했던 그의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겸손하지만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수렴되었다. "언젠가 '뭔가를 산다는 것은 투표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단순한 소비 행위가 우리 삶을 바꾸는 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베트남 빈곤 주민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지구라는 푸른 별이 그 자리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구라는 별에 안착한 이웃들과의 오랜 공존을 위해 그는 이제 욕실 풍경부터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대나무 칫솔을 쓰시면 대나무 칫솔 1개당 18g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또 대나무 생산지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요.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칫솔이에요. 일석삼조를 위해 칫솔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요?"

현재 넘어 미래까지 생각하는 솔루션 제공자가 될 것

닥터노아는 매일 쓰는 칫솔과 치약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을 덜어내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재료와 성분을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오랄 케어 제품을 선보인다. 칫솔 자체도 친환경이지만, 내구성 강화를 위해 식물성 천연 원료로 마감하는 공정도 친환경이다. 작은 소셜 벤처 하나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칫솔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나서 플라스틱 대신 대나무로 제품을 만들어 판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닥터노아의 믿음이자 바람이다. "치과의사, 국제구호활동가로 살다가 사업을 하려니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울 거고, 열심히 대나무 칫솔 홍보와 판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좋을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의미와 가치도 커지는 것이니까요."

오래전 남부 아시아와 중부 아프리카의 빈곤지역을 돌아다니며 깨끗한 물에 접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다는 박근우 대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 의학의 발달이 아닌 '상하수도의 보급'을 꼽을 정도다. "K-water 임직원분들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연이라는 자원만큼 소중한 자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 대표의 꿈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칫솔보다 가격 경쟁력 있고 품질 좋은 대나무 칫솔을 만들어, 세상의 모든 플라스틱 칫솔 회사들이 대나무로 칫솔을 만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조업체로서의 닥터노아를 넘어,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닥터노아로 보폭과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환경 운동가라야만 지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애향심과 애국심도 좋지만, 이제 애구심(愛球心)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푸른 별 지구를 사랑하는 한 평범한 지구인의 애절한 마음이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닥터노아

문의 02-856-2030

홈페이지 www.doctornoah.net

기후위기,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글_ 박상욱 JTBC 환경분야 심층취재기자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계 각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굳건합니다. '경제 회복이 우선이니 기후위기 대응은 조금 늦춰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선 사뭇 의아할 겁니다. 유럽·북미 등 선진국이(물론, 한국도 이제 '국제공인' 선진국으로 분류됐습니다만) 우리보다 지구를 아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곧 경제 회복'이라는 공감대 덕분입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 모두 '탈탄소가 살 길'이라 여기는 겁니다. 물론, 탈탄소에 대한 각각의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시민사회는 '우리 인류의 생존이 달린 길'이라고, 산업계는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라고, 정부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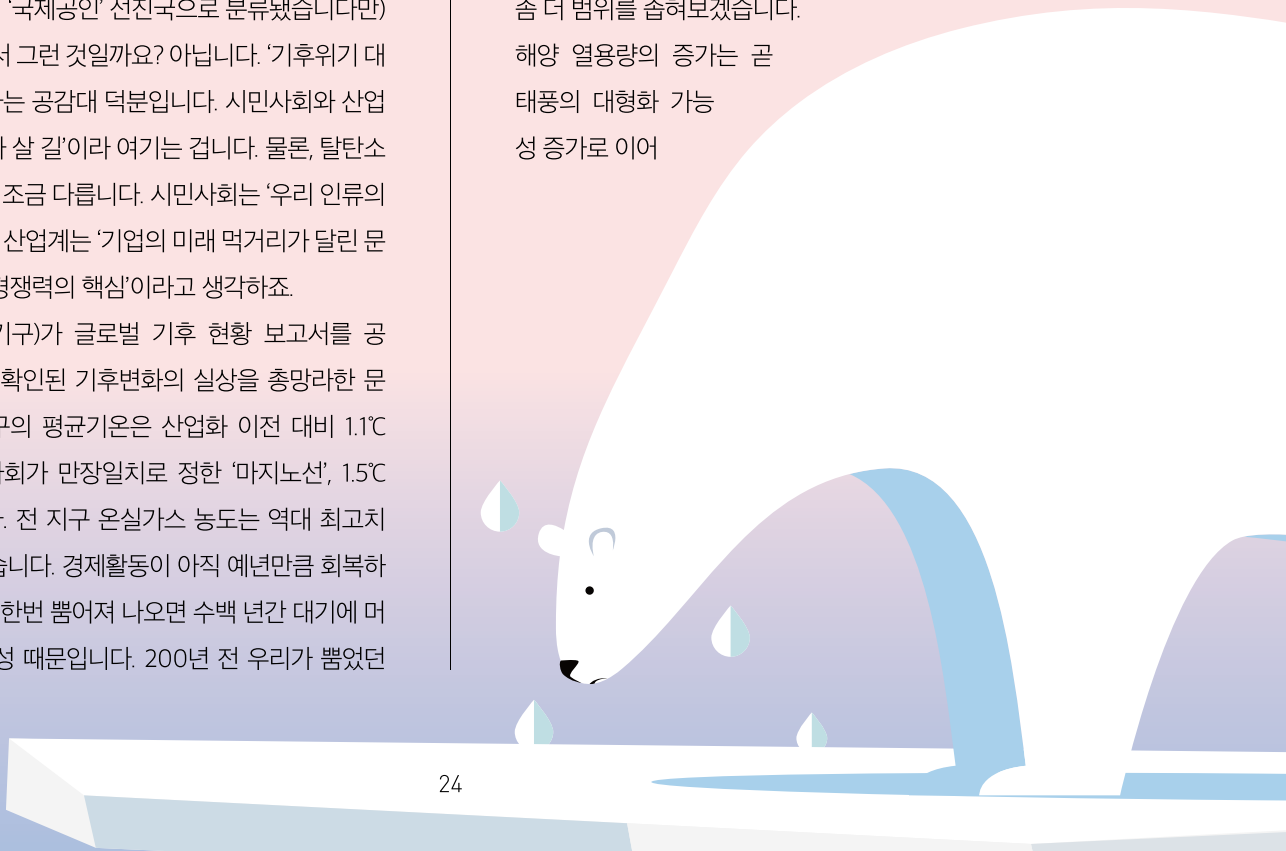
최근 WMO(세계기상기구)가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기후변화의 실상을 총망라한 문서입니다. 2021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나 높았습니다.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정한 '마지노선', 1.5℃의 턱밑까지 온 겁니다. 전 지구 온실가스 농도는 역대 최고치(413.2ppm)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아직 예년만큼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말이죠. 한번 뿜어져 나오면 수백 년간 대기에 머무는 이산화탄소의 특성 때문입니다. 200년 전 우리가 뿜었던 이산화탄소는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죠. 온난화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해수온과 해수면 상승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바다가 품고 있는 열에너지의 양인 '해양 열용량'의 사상 최고치로 이어졌습니다. 해양 산성도 또한 역대 최고(pH 8.05)를 기록했고요. 기후위기 각종 지표의 신기록 4관왕에 힘입어 북극의 해빙(海氷) 역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구에 나타나는 기후변화

'북극곰이 살기 어려워진 것은 가슴 아프지만, 지금 내 살 길 찾기도 힘든걸.' 위기를 알고도 외면하기 쉬운 오늘입니다. 먼 나라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의 범위를 '전 지구'에서 우리와 좀 더 가까운 '아시아'로 좁혀보면 어떨까요. 2020년 기준, 아시아의 육상 평균기온은 1981 ~ 2010년 평균 대비 무려 1.42℃나 올랐습니다. 산업화 이전(1850 ~ 1900년) 대비가 아닌, 최근 30년 대비입니다. 아시아만 놓고 보면, '마지노선'은 이미 넘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전 지구 평균 해수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해수온 상승률은 전 지구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전 지구 평균 해양 열용량 역시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아시아 지역 주요 바다의 해양 열용량 증가 속도는 전 지구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아직도 북극곰이나 적도 열대지방을 걱정할 때일까요.

좀 더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해양 열용량의 증가는 곧 태풍의 대형화 가능성 증가로 이어



집니다. 태풍은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 몬순지역을 초토화시키죠. 태풍만 문제일까요. 지난 2020년, 동아시아 몬순지역의 강수량은 이전 30년(1981 ~ 2010년) 평균 대비 약 2배에 달했습니다. 1년 365일에 걸쳐 고르게 늘었다면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됐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강수량은 늘지만 강수일수는 줄어드는, 집중호우가 급증한 겁니다. 1985 ~ 2019년 호우 발생 빈도는 1960 ~ 1984년의 5배에 달합니다.

이는 경제적 타격으로도 이어집니다. WMO가 발표한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집중호우나 태풍, 가뭄 같은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피해 상위 5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1위 중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액이 무려 2,379억 7,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2위 인도는 871억 5,200만 달러, 3위 일본은 833억 5,000만 달러였고요. 4위인 우리나라는 242억 7,900만 달러였습니다. '중국보다 적네' 또는 '일본보다 적네'라고 위안을 삼기에는 너무도 큰 액수입니다. 우리 돈 30조 원을 훌쩍 넘는 돈이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때

기후변화라는 지구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 노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북미는 조금씩 탄소배출량을 '무역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는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입니다. 폭염, 가뭄, 폭우,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만 위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이행은 먼 일, 남 일이라 부르며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더는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뜨거운 지구를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휘게(Hygge, 편안하고 아늑한 여유를 즐기는 삶)' 라이프를 즐기는 덴마크인의 삶의 질은 세계 최고로 통한다. 그 배경에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온 친환경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이미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덴마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열고 있다.

글_ 임산하 출처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터저널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녹색 국가 도시 1위 덴마크

DENMARK

덴마크 정부와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협력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에너지
연구개발(R & D)은 에너지기술의 상업화에
초점을 두고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추구하며, 보다 저렴한
그린에너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겠다는 목표다.

1

2

1. '발트해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본홀름
2. 롤란드의 윈드파크

신재생에너지의 바람이 분다

북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대표적인 녹색 국가다. 1971년 세계 최초로 환경부가 설립된 나라로 정부와 기관, 기업, 국민이 모두 나서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을 위해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다. 1970년대 덴마크는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1997년 에너지 자급 국가 전환 이후 현재 전력 대비 7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풍력발전에 주목했다. 1년 내내 강하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 풍력발전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덴마크 전역에는 수천 개 이상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으로 15개의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완공된 가운데 빈드뷔(Vindby) 해상풍력발전단지가 2017년 해체돼 현재 14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있다. 총 누적 발전 용량은 1,699MW에 달한다.

2018년 덴마크 의회는 2030년까지 3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가로 건설해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최소 2,400MW를 추가하는 목표를 수립하는 등 청정한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탄소 없는 섬, 본홀름

덴마크에서 135㎞ 떨어진 본홀름(Bornholm)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가득한 바위 섬이다. '발트해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이 섬은 덴마크 다른 지역에 비해 해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 길어 멋진 풍경과 햇살을 즐길 수 있다. 또 넓은 해변과 깎아지른 절벽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할 수 있으며, 유적지와 오래된 제분소 등 아름다운 명소들로 가득하다.

4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그동안 덴마크 정부가 크게 주목하지 않은 외곽 섬에 불과했다. 발트해 연안 나라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지난 2009년부터 '녹색 섬 개발 프로젝트(Bright Green Island Project)'를 시작해 에너지 기술 실험 무대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생활, 비즈니스 및 관광을 추구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섬 전체 에너지 소비의 50%를 충당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목표로 하는 녹색 섬 프로젝트는 모든

자원의 재생, 순환을 원칙으로 하며,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자립 도시, 롤란드

덴마크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롤란드(Lolland)는 신재생에너지의 집합소로 유명하다. 892㎢의 크기에 인구 5만여 명이 살고 있는 이 섬은 덴마크 최고의 환경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으로 에너지 자립 섬이라고 할 수 있다. 풍력, 태양, 바이오, 수소 등 최신의 에너지 실증이 진행 중이다.

1991년 빈드비(Vindeby) 해상풍력발전단지에 450KW급 풍력발전기 11대가 건설된 것을 시작으로 롤란드 섬에서 해상풍력발전 산업은 급성장했다. 2003년 완공된 덴마크 최대급의 풍력발전단지인 니스테드(Nysted)의 경우 24㎢의 면적에 72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연간 60만MW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섬 전체 인구가 사용하고도 남는다. 쓰고남은 잉여전력은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전기로 만들어 사용한다. 일례로 롤란드의 베스텐스토 마을에는 가정마다 연료전지 모듈이 설치돼 있다. 망을 통해 수소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고 동시에 발생한 열을 난방에 이용한다. 탄소가 없는 완벽한 에너지 자립 도시다.

세계 최초 인공 에너지 섬 조성

덴마크는 풍력발전으로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 에너지 섬을 바다 한가운데 띄울 예정이다. 육지에서 80㎞ 떨어진 바다 위에 1만 1,150㎡에 달하는 에너지 섬을 203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축구 경기장 16개에 달하는 크기로, 풍력발전기 200대가 들어서게 된다.

이 에너지 섬은 덴마크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이웃 국가의 수요도 충족할 수 있으며, 해상 운송, 항공 등 산업에도 전력을 공급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와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협력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에너지 연구개발(R & D)은 에너지기술의 상업화에 초점을 두고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추구하며, 보다 저렴한 그린에너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깨끗한 자연을 활용한 덴마크는 물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덴마크상하수도협회와 미국물연합체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물 분야에서도 넷제로 달성 목표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3. 니하운 운하가 흐르는 코펜하겐

아이스팩을 버리는 게 곤란하다면 아이스팩 새활용 방법에 주목하자.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단순하면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글_ 최행좌 출처_ 아이디어스

처치 곤란했던 아이스팩의 놀라운 변신

idus
QR코드를 스캔하고
아이스팩으로 젤디퓨저
만들기를 따라 해보세요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뚝딱뚝딱 만드는 재미

요즘 신선·냉동식품을 주문하면 당연히 같이 배달되는 것이 아이스팩이다. 사용하고 남은 아이스팩은 1 ~ 2개만 있으면 충분해 버릴 때는 애물단지로 변한다. 아이스팩은 일반적으로 물을 얼려 사용하거나 '고흡수성 폴리머'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고흡수성 폴리머는 젤 형태여서 부서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적은 반면 무겁고 부피가 커서 처치가 곤란할 때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핸드메이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인 아이디어스의 클래스 영상팀 '뚝딱뚱땅'이 아이스팩으로 젤디퓨저 만드는 방법을 공개했다. 환경을 생각하며 손으로 만드는 제로웨이스트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다.

뚝딱뚱땅 영상팀은 "요즘 디퓨저와 캔들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디퓨저와 캔들은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어 선물로도 인기 있는 아이템입니다. 냉동실에 하나쯤 보관하고 있을 아이스팩을 활용해 디퓨저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바로 아이스팩 내용물에는 냄새를 흡수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든 젤디퓨저는 2주 정도 발향이 지속되며, 향이 사라졌다 싶을 때는 향수를 추가로 넣어주면 된다. 재활용으로 환경도 살리고 만드는 재미까지 더하는 젤디퓨저 만들기에 도전해 보자.

아이스팩으로 젤디퓨저를 만들어요

준비물: 아이스팩, 가위, 공병, 나무젓가락, 섬유유연제 혹은 향수, 우드 스틱, 물감

섬유유연제로 젤디퓨저 만들기

① 아이스팩과 공병을 준비한다.

② 공병의 60% 정도만 아이스팩을 채워 넣는다.

③ 섬유유연제를 덜어서 나무젓가락으로 섞는다.

④ 우드 스틱이나 꽃을 꽂아 마무리한다.

① 공병의 40% 정도만 아이스팩을 채워 넣는다.

② 병 안쪽에 향수를 5번 뿌린다.

③ 나무젓가락에 물감을 묻혀 아이스팩과 섞는다.

④ 같은 비율로 젤 다시 넣고 깨끗한 젓가락으로 다시 섞는다.

⑤ 마무리로 병 끝까지 아이스팩을 넣고 향수를 3번 뿌린 다음 섞는다.

⑥ 우드 스틱이나 꽃을 꽂아 장식한다.

향수로 젤디퓨저 만들기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냉방 기기는 필수템이다. 하지만 냉방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다가는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명한 냉방 습관으로 냉방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해보자.

글_ 이종철

여름 단골 질환, 냉방병주의보

냉방병일까? 아닐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맺히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앞이 명당이다. 금세 더위를 날려주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에어컨부터 찾게 된다. 하지만 에어컨을 끼고 살다간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냉방병은 과도한 냉방으로 커진 실내외 온도 차에 우리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다.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여름 감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른다.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기도 하고, 두통이나 피로감, 어지럼증, 소화불량, 변비,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 실내외 급격한 온도 변화로 말초혈관이 수축해 얼굴, 손, 발이 붓기도 한다.

냉방병을 예방하세요!

적정 온도 유지

-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 25도 내외 유지하기
- 실내외 온도 차 5도 이하 유지하기

주기적 환기

에어컨 일정 시간 가동 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바람 방향 조절

에어컨 찬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조절하기

따뜻한 물 마시기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자주 마시기

냉방병 vs 감기 vs 레지오넬라증

냉방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감기와 레지오넬라증이 있다.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린다. 주로 발열·기침·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냉방병에 걸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해 감기에 걸리기 쉽다.

감기는 아니지만, 에어컨의 냉각수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공기 중으로 나오면 호흡기에 감염될 수 있다. 이를 레지오넬라증이라고 한다. 이 질환은 2 ~ 12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고열·기침·근육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하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냉방병을 미리미리 예방하려면

냉방병은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냉방 기기 사용을 중단하면 며칠 내로 증상이 좋아진다. 냉방병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냉방 기기를 끄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 조절이 중요한 데 에어컨은 실내외 온도 차가 5 ~ 6도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실내 온도를 25도 내외로 유지한다. 이때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가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며, 긴소매 옷이나 카디건 같은 겉옷을 준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자주 마시면 기관지를 보호하고 체온을 올릴 수 있다.

또 2 ~ 4시간 간격으로 실내를 환기해 차가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게 하고 습도는 50 ~ 60% 수준으로 유지한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다. 밤새도록 에어컨을 가동하다 가는 냉방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잠든 후 1 ~ 2시간 후에 에어컨이 꺼질 수 있도록 예약 기능을 이용하도록 한다.

시원한 음료 마시고
우리 함께 힘내요!

한강유역본부 충주권사업단 깜짝 배달!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한강유역본부 충주권사업단에 커피차가 도착했다. '수(水)타벅스가 간다'의 첫 손님이 된 이들은 시원한 음료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환하게 웃었다.

글_ 최행좌 사진_ 한유리 영상_ 김지혜

동료애가 쏘아 올린 작은 이벤트

지난 7월 19일, 한강유역본부 충주권사업단에 핑크색 트럭이 등장했다. 점심 식사하러 식당으로 이동하던 직원들이 "무슨 일이지?"라는 표정으로 트럭을 바라봤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머리 위에는 물음표가 떴고, 현장 직원들의 머리 위에는 느낌표가 반짝였다. 문이 열리자 시원한 음료를 가득 싣고 온 '커피차', 이름하여 수(水)타벅스였다. 사연을 받고 출동한 수(水)타벅스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한강유역본부 충주권사업단 이동기 사원이다.

"가장 가까운 커피 전문점까지 차로 20분, 왕복 40분이 걸려요. 점심시간을 쪼개서 카페인을 수혈하고 오기 위해서는 큰맘 먹어야 하죠.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여유롭게 얘기해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곳에는 시원한 커피차가 절실해요."

도심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피일 수도 있겠지만, 댐 건설현장에서의 커피는 커피 이상의 달콤함을 선사한다. 뜨거운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커피차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이동기 사원의 사연에는 동료들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K-water 최대 수자원 건설현장

한강유역본부 충주권사업단은 K-water 최대 수자원 건설현장으로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조절능력을 높임으로써 충주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K-water 40여 명의 직원과 시공사 DL이앤씨 150여 명의 직원이 국민의 물복지를 위해 땀 흘리고 있다.

누계 공정률은 약 80%에 달한다. 현재 약 총 1,500m 길이의 3개 터널부를 굴착한 후, 터널 내부 원형 표면을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터널 라이닝 공사를 완료했다. 또 터널 유·출입부에 대한 구조물 공사는 전체 15만㎥ 중 10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다. 오는 2024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K-water 직원과 DL이앤씨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다.

이들은 단합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댐 건설현장 특성상 가족들보다 직원들이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 K-water 직원, DL이앤씨 직원,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무를 마치고 난 뒤에 팀을 나눠 족구를 하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친밀감도 높인다. 특히 타국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안제식 충주권사업단장은 "충주권사업단에서는 수자원 활용의 무한가치를 다시 한 번 높이기 위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더욱 안전한 수자원의 저장고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관련해 전 직원이 안전의식을 강화하며 건설사고 없도록 안전관리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부내륙지역 6개 시·군, SK하이닉스 등의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국가 산업·경제와 국민 물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엿보인다.

충주권사업단은 '오늘도 맑음'

점심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텀블러를 들고 커피차 앞에 길게 줄을 섰다. K-water 직원은 물론 DL이앤씨 직원, 외국인 근로자까지 그 행렬에 합류했다. 더위를 식혀줄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달달한 카페라테, 달콤한 아이스티, 톡 쏘는 에이드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음료들이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른 장지현 대리는 "커피차는 유명한 연예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커피차를 선물 받으니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잘 마시겠습니다"라며 동료들과 함께 인증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평소에도 남다른 팀워크를 자랑하는 충주권사업단은 이날 역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박필구 공사1부장은 "생각지도 못한 커피차를 선물로 받아 충주권사업단 직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남은 공사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맛있어요"라며 손하트를 보냈다.

언제나 미소로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어 한강유역본부 충주권사업단은 '오늘도 맑음'이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message.

뜨거운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커피차를 쏩니다!

이동기 사원

한강유역본부 충주권사업단

유난히 올해는 일찍 더위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구조물, 총 길이 약 1,500m 터널, 댐 주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한 습한 날씨 등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웃으며 인사하는 K-water 선후배, 동료, 같이 땀 흘리며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DL이앤씨 시공사 직원들,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땡볕 아래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작업자분들에게 시원한 커피를 선물해 드리고 싶어 신청하게 됐습니다.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ESG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는 K-water

세계 최고의 물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K-water는 차별화된 ESG 전략과 추진력으로 국민들의 물안전·물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전 분야에 걸쳐 ESG 관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water의 성과를 공유한다.

글_ 최행좌 출처_ K-water

공기업 1군 최초 ESG 선언

2021년

상장사 진단기준 ESG 경영 기관평가

우수등급(A) 획득

2022년 추진방향

3대 혁신방향 9대 추진과제

'물-에너지-도시 그리고 ESG' 넥서스 구현

K-water는 지난해 ESG 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올해는 후속대책으로 ESG 3.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물-에너지-도시 그리고 ESG' 넥서스 구현을 경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3대 혁신방향 9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 눈높이를 뛰어넘는 완성형 유역물관리체계 구축, △국민·산업의 니즈를 해결하는 물서비스 제공, △글로벌 탄소중립을 이끄는 넥서스 선도기업 도약, △물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조직 쇄신 고도화로 ESG 경영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탄소중립 물관리로 ESG 경영 실천

K-water는 연간 2,244G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사업장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감축량이 많은 탄소중립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K-water는 2050년 78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업(시설용량 기준)

1 위

재생에너지 시설용량

1,413 MW

청정에너지 생산(2021년 기준)

2,244 GWh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1,092 MW	**254** MW	**59** MW	**8** MW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780 만 톤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9 배(888%)

물산업 기업과 동반 성장

2025년까지 펀드 조성

4,300 억 원

물산업 유망 스타트업 지원

516 개 기업

일자리 창출

1,806 개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12 개 기관 참여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경영

ESG 경영은 내·외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방침으로 기업활동에 친환경 경영(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K-water는 물의 가치를 높여 대한민국 ESG 경영에 앞장섭니다

ESG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요즘이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K-water는 ESG 경영을 선언하며 ESG 가치와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글_ 최행좌 출처_ K-water

ESG 경영의 선두주자가 되다

K-water는 2021년 3월 16일 국민 물안전·물복지의 해법이 될 '물특화 ESG 경영'을 선언하며 ESG 경영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이후 환경과 사회를 지키는 물 종합 클린 거버넌스를 추구하며 사내 인식 확산, 제도화, 내재화를 통한 공공부문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물특화 ESG 경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영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확대'라는 ESG 측면의 경영방침과 성과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K-water는 지난해 기존 중장기경영전략 연계과제(12개)와 신규 발굴과제(8개) 등 20개 중점추진과제를 진행했다. ESG 경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를 발족한 후 11월에는 ESG 진단체계를 마련했으며, 12월에는 ESG 자문단을 출범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ESG 경영원칙을 수립했으며 이는 K-water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행동 규범과 의사결정기준으로, 물특화 ESG 경영에 대한 K-water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추진한 결과, K-water는 지난해 공신력 있는 ESG 전문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 공공기관 진단기준 최고등급인 AA등급을, 상장사 진단기준으로는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는 ESG 3.0 도약을 위한 도전적 후속 대책을 추진하며, ESG 경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물-에너지-도시 그리고 ESG' 넥서스를 경영방향으로 설정했다. △인식혁신, △사업혁신, △프로세스·제도혁신 등 3대 혁신방향을 정하고, 9대 추진과제를 진행 중이다.

인식혁신으로는 전 직원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ESG 관련 공시 확대, ESG 중심의 홈페이지 재편, ESG 소통채널 개설 등 ESG 인식 제고와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Bottom-up 형태의 실천모델이나 ESG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전 직원 공모전을 열어 직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혁신으로는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진단체계를 통해 물순환 전 과정에

걸쳐 ESG 추진여건 및 강·약점을 점검하고, 사업별 ESG 진단 및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등 ESG 내재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프로세스·제도혁신으로는 ESG 관점의 사규 정비 등을 통해 업무절차 내 ESG 저해요소를 혁신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처럼 K-water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ESG 경영 활동으로 대한민국 ESG 경영을 선도하고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탄소중립 물관리로 혁신을 이루다

K-water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물관리로 '친환경 경영(Environmental)'을 실현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1위 기업(시설용량 기준)으로서 탄소저감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물이 가진 잠재성을 살려 국가 전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73년 소양강댐 수력발전을 시작으로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그린수소 등 물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확대 중이다. 현재 K-water의 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은 1,413MW이고, 지난해 기준 2,244GWh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기여했다.

또 국내 최초 '물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완료했다. 로드맵은 2050년 탄소중립 비전과 감축 수단, 속도 등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 있다. 2050년까지 78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9배(888%)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동반 성장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다

K-water는 동반 성장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경영(Social)'을 펼치고 있다. K-water가 국가 K-테스트베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 및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K-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실증지원 실적, 플랫폼 관리 및 타 참여기관 지원역량 등을 평가해 K-water를 국가 테스트베트(K-테

1. 지난 4월 22일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출범 및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2. 합천댐에 수상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3. 지난해 3월 16일 K-water는 공기업 1군 최초로 'ESG 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

스트베드) 총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간 K-water는 121개 수자원 수도시설을 개방해 지난해 총 89건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했다. 실증부터 판로지원까지 one-stop 지원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 같은 물산업 테스트베드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테스트베드로 성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K-water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충청권 및 동남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2,500억 원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물산업 펀드)를 조성해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1호 '충청권 벤처펀드'와 2호 '동남권 벤처펀드' 조성 성과를 바탕으로 3호 펀드인 호남·제주권 펀드 조성 등 2025년까지 4,3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22일에는 물산업 육성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 기구로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K-water는 물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고,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상생 성장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ESG 경영의 가치와 성과를 확산시키다

K-water ESG 경영의 실행력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해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분기별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K-water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구성된 위원회로써 ESG 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water ESG 경영역량 강화 및 ESG 성과 확대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K-water는 공기업 1군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며, 녹색전환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기후위기 시대에도 ESG 가치와 성과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국민에게 물로 행복을 드리는 것이 K-water의 변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ESG 경영으로 물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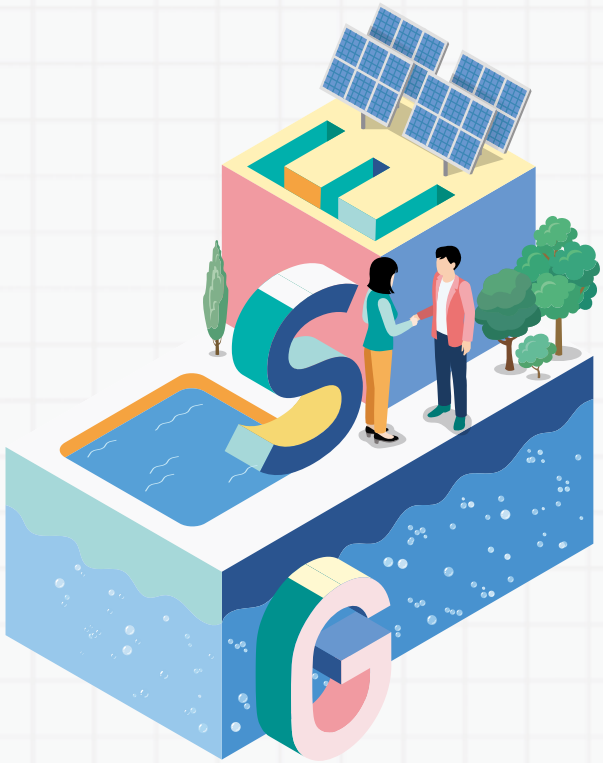
K-water는 이렇게 ESG를 선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K-water는 물의 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경영, 즉 ESG 경영의 선두주자로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물특화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K-water의 키워드를 소개한다.

글_ 최행좌 일러스트_ 하고고 출처_ K-water

ESG 3.0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에서 책임을 갖고 ESG를 챙기는 단계로,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이 ESG에 정통한 이들로 구성돼 있다. ESG 관련 공시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ESG를 사업에 내재화해 본인들만의 해법과 모델을 찾아 실행해가는 단계로 ESG에 대한 진정성이 확보된 단계를 뜻한다. K-water는 올해 ESG 3.0 도약을 위해 도전적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SG 경영원칙

E는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구, S는 상생을 통해 사회의 공동선을 우선, G는 소통을 바탕으로 투명한 의사결정을 뜻한다. K-water는 전사 중장기 전략체계 내 ESG 경영원칙을 수립하고 올해 '물-에너지-도시, 그리고 ESG' 넥서스를 경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물산업 육성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 기구로, 지난 4월 22일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K-water와 한국벤처투자, D3쥬빌리파트너스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들은 물산업 유망기업 정보공유 및 전문 투자심사역 양성 등 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을 지원하며 물산업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SG 경영 위원회

ESG와 관련된 주요 경영전략, 추진계획, 진행 및 성과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K-water는 지난해 8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및 기획부문이사 등 9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ESG 채권

ESG 채권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투자에 한정해 사용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용도에 따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K-water는 지난해 3월 12일, 공기업 1군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해 녹색전환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다.

김형욱 사원
백민지 대리
안재현 사원
최준영 대리

그림 그리기 좋은 날이에요

전남서남권지사 직원 4명의 유화 그리기

미국의 화가인 밥 로스(Bob Ross)는 "그림 그리기 참 쉽죠?"라고 말했다. 쉽지만, 쉽게 도전하기 어려웠던 그림 그리기를 위해 전남서남권지사 직원 4명이 모였다. 이들에게 내재돼 있던 예술적 감수성이 작품 안에서 폭발했다.

글_최행좌 사진_한유리

그림을 그리며 추억을 남기는 네 사람

밝고 화사한 분위기의 화실로 들어온 전남서남권지사 백민지 대리, 최준영 대리, 김형욱 사원, 안재현 사원이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이젤과 하얀색 캔버스가 이들을 맞이했다. 예술 감성을 터트리기에 충분한 무드였다. 이들이 사무실이 아닌 화실에 모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재작년에 동기와 서울 여행을 갔을 때, 원데이 클래스로 유화 그림을 그렸는데, 무척 재미있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도 갖고, 재미있는 추억을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만남은 백민지 대리의 바람으로 이루어졌다.

"각자 업무가 바쁘다 보니 직원들과 즐겁게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리는 시간 동안 여유와 평화를 찾고 그동안 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쌓고 싶어요"라는 최준영 대리부터 "그림을 그려본 게 학창 시절이 마지막이었어요"라는 김형욱 사원과 "바쁜 일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여유를 찾고 싶어요"라는 안재현 사원까지. 유화를 그리는 게 사실상 처음이라는 이들에게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유화 그리기를 위해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준비를 해온 이들의 모습에 자신감이 엿보였다.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릴지' 각자 그리고 싶은 사진을 준비해왔다.

"유화는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더욱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색깔을 겹들여 칠하면 그림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라고 박상희 원장이 설명했다.

캔버스를 채우며 유화의 매력에 빠져든 시간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채색하기 시작했다. 서로가 유화 물감과 함께 사용할 유화용 오일, 그리고 붓을 챙겨주었다. 이들은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 캔버스에 색을 채워 넣었다. 하얀색과 파란색을 조합한 백민지 대리는 "이 색깔 어때요?",

"우와, 하늘색이 정말 예쁜데요"라며 최준영 대리가 신기해했다. 신비로운 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김형욱 사원의 "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떡하죠?"라는 걱정스러운 말이 들리자 모두가 웃음꽃을 피웠다. 파도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고민했던 안재현 사원은 캔버스 가운데에 하얀색 물감으로 과감하게 채색했다.

입체감 있는 나무를 표현하고 싶었던 백민지 대리가 "입체감 있게 그리는 게 생각처럼 잘 안돼요"라며 난감해하자 "유화는 덧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옅은 색으로 표현하고 점점 진한 색으로 덧칠해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면 입체감을 잘 살릴 수 있어요"라고 박상희 원장이 도움을 줬다.

색채의 연금술사인 샤갈처럼 다양한 색을 조합한 최준영 대리의 그림을 보고는 "정말 잘 그렸는데요. 사진이랑 똑같아요"라며 모두가 최준영 대리의 그림 실력에 놀랐다.

중간중간 선생님이 조언도 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도 해주면서 이들은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나갔다.

섬세한 붓 터치로 멋진 작품이 탄생

과연 완성될까 싶었던 그림이 그럴듯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다. 밋밋했던 그림에 마음을 담은 붓 터치가 더해지자 멋진 작품으로 변해갔다.

점 하나를 그릴 때조차 집중해 온 백민지 대리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붓을 잡고 시작하려니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라며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봐서 어려웠지만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돼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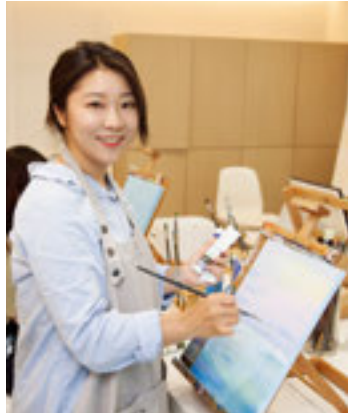
전남서남권지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캐리커처 그리기로 재능기부를 하기도 했던 최준영 대리는 "유화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유화는 색깔을 어떻게 넣어도 예쁘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라며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그림을 그렸던 김형욱 사원은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손을 댈수록 그림이 엉망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달 테두리 그릴 때 점점 커지고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을 보니 뿌듯해요"라며 그린 그림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겠다고 한다.

시종일관 '미대 오빠' 같은 자세로 그림에 몰두해 온 안재현 사원은 "학창 시절에 미술활동을 안 좋아했는데 오늘 참여해 보니 그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색을 조합해야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올까 고민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요"라며 완성된 그림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덧칠할수록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는 유화처럼 이들의 시간도 쌓여갈수록 더 멋진 팀워크를 자랑하는 전남서남권지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66
과연 완성될까 싶었던 그림이 그럴듯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다.
밋밋했던 그림에 마음을 담은 붓 터치가 더해지자
멋진 작품으로 변해갔다.
99

프로 일잘러의 고민 '일을 잘하니 일이 자꾸 늘어나네?'

최근 '프로 일잘러'에 대한 콘텐츠가 넘쳐난다. 프로 일잘러가 되기 위한 책, 강연, 영상,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프로 일잘러'는 말 그대로 일을 '프로'처럼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 자체가 '일을 잘하고 싶은' 직장인의 욕구를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일을 잘 하고 싶은 것은 직장인의 본능인지도 모르겠다. 일을 못하고 싶은 직장인은 없을 테니 말이다. 근데 말이다. 왜 일을 잘하고 싶을까?

글_ 최정우 심리상담사

66

주인공은 ○○랜드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김○○' 씨다. 그녀는 근무 중 무심한 듯 내뱉는
속사포 랩으로 놀이 기구 대기 고객과 이용 고객에게
즐거움을 줬다. 그녀를 보면 '진정한 프로 일잘러' 같다.
속사포 랩을 쏟아 내지만 무심한 표정, 출 춤은 다 추지만
최소한의 몸을 사용하는 듯한 간결함.
이런 그녀를 바라보면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번아웃을
겪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면에서 그녀는 진정한 프로 일잘러다.

99

왜 일을 잘하고 싶을까? 일을 잘해야 승진도 빨리하고 승진도 빨리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돈뿐만이 아니다. 일을 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그래야 성공한 느낌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인간 본성의 근본적 원리 중 가장 강한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른다면 일을 잘하고 싶은 욕구도 결국은 이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어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뭐든지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일도 마찬가지다. 일을 너무 잘해 더 많은 일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는 좋을 수 있다. '회사에서 나의 능력을 알아보고 더 많은 일을 주네. 더 잘해야지.'

만유인력의 법칙은 일에서도 통한다. 일은 일을 끌어당긴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이 갈 수밖에 없다.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용 능력을 벗어났을 때다. 일을 쳐내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한다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이때 찾아오는 대표적 증상이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이다.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여 마치 불이 나간 듯 정신이 나간 듯한 현상이다. 우울감, 불안감, 불면, 신체적 불편감 등 다양한 임상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워크홀릭(Workaholic)도 감당할 수 없다면 무너진다. 일에 휘둘리게 된다. 감당이 안 된다. 그때부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파묻혀 사는 지경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프로 일잘러가 될 필요가 있다. 진정한 프로 일잘러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해가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최근 '소울리스좌'라는 말을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영혼이 없음을 뜻하는 '소울리스(Soulless)'와 통달한 자를 의미하는 '00좌'를 합친 신조어다.

회사를 이렇게 다녀보자. 일에 큰 에너지를 쏟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업무에 공백은 초래하지 않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시 퇴근을 생활화하지만 지각은 절대 하지 않는, 회의 시간에 상사가 기분 나빠할 만한 자신의 의견도 소신껏 내뱉지만 회의 후 다정하게 말을 거는 그런 직장인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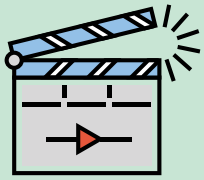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프로 일잘러란 첫째, 모든 에너지를 일에 업무에 쏟아붓지 않고 회복할 만큼의 에너지는 항상 남겨둔다. 둘째, 몰입은 하되 소진(燒盡) 되지 않는다. 집중은 하되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일'보다 '내'가 우선임을 잊지 말자. '일'보다 내가 중요함을 잊지 말자. '내'가 있어야 '일'이 있고 '내'가 있어야 '회사'도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생활하자.

우리가 마시는 물, 수돗물이 궁금해!

K-water의 사업들, 여전히 어렵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글_ 최행좌 출처_ K-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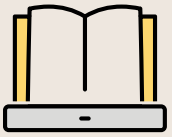
Q. 우리는 매일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은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수도 시설은 부여군 백제 관북리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우물을 파서 먹는 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근대 상수도의 역사는 1908년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뚝도정수장이 근대 상수도의 시작이며, 당시 사대문 안과 용산 일대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지금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는 수돗물 수질, 정수장 운영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품질의 수돗물 관리는 K-water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K-water는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 과정에 AI와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수돗물 안심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제공합니다. 또한 물이용 취약지역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나라에 수돗물이 언제 도입되었는지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퀴즈 EVENT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수돗물이 도입되었을까요?' 영상을 확인하고 정답을 남겨주세요!

Q1.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수도 시설이 발견된 지역은 어디일까요?

Q2. 지금과 같은 근대 상수도의 역사는 몇 년도에 시작되었을까요?

Q.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연 그대로의 물을 '원수(原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강변이나 댐에서 취수된 물은 취수장을 통해 정수장으로 들어옵니다. 정수장으로 들어온 물은 착수정에서 유량을 조절합니다. 착수정에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질 수돗물의 맛이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오존을 이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착수정으로 들어온 물은 혼화지로 들어가서 응집제라는 약품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응집제는 원수 안에 들어있는 많은 불순물들이 서로 엉겨 붙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불순물의 크기를 키워 쉽게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응집제를 섞어준 물은 응집지로 이동해 응집기라는 설비를 통해 약품과 원수를 잘 섞어줍니다. 이 응집제와 섞어진 물은 침전지로 가서 약 4시간 정도 커진 덩어리가 가라앉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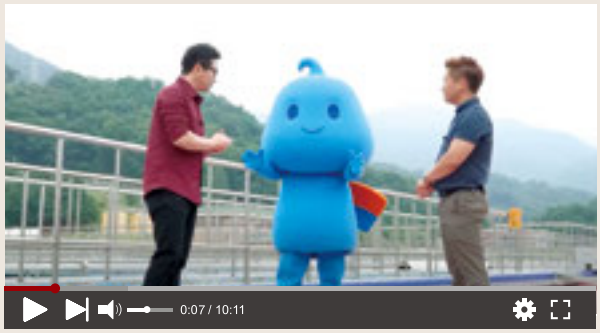
침전지를 통과한 물은 여과지로 들어갑니다. 여과지로 들어온 물 안에 있는 미세한 이물질 입자들은 여과사인 모래와 활성탄을 통과합니다. 활성탄은 여과지를 통과한 물 안에 남아 있는 맛, 냄새, 물질을 한 번 더 흡착시켜 제거함으로써 수돗물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정수처리 과정 중간중간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소독제를 통해 물속의 미생물이나 세균 등을 억제시킵니다. 이처럼 수돗물은 각 단계마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로 완성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서현우 K-water 경기동북권지사 과장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공부왕 방울이가 한강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정답을 남겨주세요!

Q3. 강변이나 댐에서 취수된 물은 취수장을 통해 어디로 들어갈까요?

Q4. 여과지를 통과한 물 안에 남아 있는 맛, 냄새, 물질을 제거해 수돗물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벤트 참여방법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쿠폰 10명
접수 마감일 8월 25일
선물 발송일 9월 15일경
※ 9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대한민국 물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상생협력을 이끌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FOCUS 1

K-water는 대한민국 물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확산과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글. 최행좌 사진. K-water

대한민국 제1호 양극화 해소 협약 체결

지난 7월 13일, K-water와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중소기업(10개 업체)과 함께 한강유역본부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water와 협력중소기업 및 동반성장위원회 간 상생협력 활동을 활성화해 협력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및 건강하고 발전적인 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제1호 양극화 해소 협약 체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K-water는 △상생협력 상생모델 기업 100개 발굴, △공동기술 개발 추진 및 테스트베드(Test-bed) 제공, △지역뉴딜 벤처펀드 및 상생협력금 조성,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3년간 2,851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구매 상담 등 판로 확대 기회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은 연구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K-water는 혁신성장과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확산하며 ESG 경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K-water는 물 분야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상생협력 증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적극 추진

K-water는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전문기업으로서 물 분야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7년부터 물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혁신기술 개발 및 판로개척, 물산업 투자 마중물 역할을 위한 벤처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또 성과공유제·구매조건부 동반성장 제도 등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33개의 혁신기업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혁신 기술개발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이번 협력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확산과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확고한 바탕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물 분야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상생협력 증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FOCUS 2

대한민국 그린수소 시대를 열다

물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 개최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수소. 대한민국의 그린수소 시대가 열었다.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생산하는 그린수소 실증시설이 착공함으로써 그린수소 선도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기틀을 마련했다.

글. 최행좌 사진. 김범기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도전

지난 7월 21일,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물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재현 K-water 사장,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유원하 현대자동차 부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정붕익 테크윈 대표이사도 함께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는 친환경(그린) 수소, △화석 연료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개질(그레이) 수소, △석유화학 또는 제철 공정 반응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생(그레이) 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은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 8,0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소수력은 태양광·풍력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물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2023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그린수소 생산부터 유통, 활용 등 전 주기 구축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모범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수소경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를 만들다

이날 착공식 이후에는 환경부, K-water, 성남시, 현대자동차, SK E&S가 그린수소 전 주기(생산-유통-활용)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K-water는 성남 광역정수장에 그린수소 실증시설을 설치한다. 해당 시설은 팔당댐에서 성남 광역정수장으로 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압을 활용해 하루 3,438MWh 규모의 전기에너지(소수력)와 정수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연간 약 69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는 하루에 약 188kg의 수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루 동안 수소차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환경부와 K-water는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충주댐(수력, 6MW), 밀양댐(소수력, 1.3MW) 등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K-water는 물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를 생산해 대한민국이 그린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K-water News

1

K-wate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린수소 연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월 5일, K-water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수소 연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수소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내용은 △그린수소 기술 상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연구 협력,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연구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시장현황 및 기술 동향, 우수기술 전수 등 정보 및 기술 교류 등이다.

향후 3년간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 연구를 위한 협력 및 기술 교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 협력 사항들을 원활하게 도출하고,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

K-water, 댐 주변지역 주민과 동행 화합행사 개최

K-water는 지난 7월 5일부터 전국 27개 댐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과 동행을 위한 화합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댐 주변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본격 재개하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6일에는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에서 장흥댐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초청 가수의 노래, 전통춤 공연과 염색·네일아트·공예체험 등의 주민화합 행사를 시행해 참석한 200여 명의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화합행사를 통해 K-water는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문화 수혜 기회를 제공해 주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댐 주변지역 주민과 동행을 위한 화합행사는 오는 8월 말까지 약 2달간 전국 27개 댐 곳곳에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주민 참여형의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

K-water, 세이브더칠드런에 '플로깅 기부 챌린지' 기부금 전달

지난 7월 11일, K-water는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플로깅 기부 챌린지'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K-water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던 'K-water와 함께 미래세대를 응원하는 플로깅 기부 챌린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챌린지 행사는 일상생활 속 걸음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나눔에 참여하는 것을 취지로, 참가자들의 걸음 수가 챌린지 목표인 10억 보에 이르면 K-water가 1,300만 원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5만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22억 걸음을 달성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 1,300만 원은 대전지역 아동 100여 명에게 여름용 기능성 침구 세트와 냉방용품,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폭염대비 키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

4

K-water-조달청,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월 19일, K-water와 조달청은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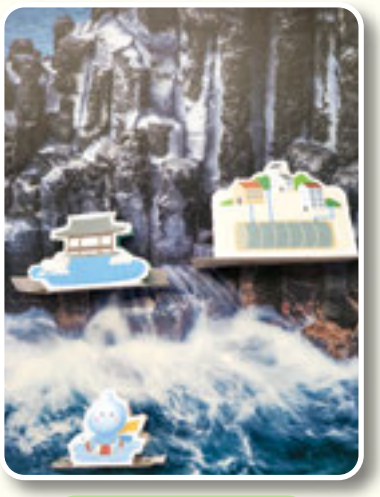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사용되는 활성탄은 현재 모두 중국에서 수입해 활용 중으로 공급망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차질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이에 양 기관은 세계 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서 활성탄 비축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원활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K-water는 활성탄의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한 활성탄 직접 구매 및 대금 지급, 정산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축하합니다

방울이와 DIY 당첨 작품

7월호 <방울이와 DIY>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서○주(010-****-8461)

이○아(010-****-2235)

강○희(010-****-0850)

이○억(010-****-3332)

이○희(010-****-3642)

#kwater물복지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ji2_ni | @park0652 | @wooo_woong | @212_khy | @99ggyyy
@hmmh_o | @tobom2 | @j_nagd | @itsyou_u | @yuncae_j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20명

이○하 010-****-3050	최○선 010-****-4963	김○우 010-****-9720	홍○표 010-****-8803
조○희 010-****-0691	하○환 010-****-2758	이○현 010-****-0728	이○명 010-****-3600
김○하 010-****-2934	서○민 010-****-5155	박○정 010-****-4893	김○태 010-****-8798
강○국 010-****-1007	정○승 010-****-9138	조○기 010-****-5472	정○채 010-****-7256
이○실 010-****-4421	강○유 010-****-0585	오○희 010-****-9125	이○애010-****-6722

이벤트 선물 발송일 8월 15일경
※ 8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K-water와 함께 하는

나만의 ESG 경영 도시 만들기

K-water는 올해 '물-에너지-도시 그리고 ESG'를 경영 방향으로 정하고 3대 혁신방향 9대 추진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의 가치를 활용한 K-water의 ESG 경영 도시를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K-water의 마스코트 '방울이'

방울이도 ESG 경영을 응원해요~

ESG 경영

K-water는 환경과 사회를 지키는 물 종합 클린 거버넌스를 추구하며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인증사진(2MB)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명
접수 마감일 8월 25일
선물 발송일 9월 15일경
※ 9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선정된 사진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소개됩니다.

ESG 경영위원회

K-water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 구독을 부탁해!

매월 K-water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구독해 주세요.

웹진 구독하는 방법

첫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 접속한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

http://k-waterwebzine.com

둘째

구독신청을 클릭한다.

셋째

카카오톡 / 이메일 중 선택한다.

넷째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벤트 응모하고 선물 받자!

이벤트 하나. 퀴즈있수다 이벤트

이벤트 상품 커피 음료 쿠폰
이벤트 참여방법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있수다 이벤트를 클릭한다.
2. 영상을 보고 정답을 작성한 다음 제출하기를 누른다.

▲ 웹진 바로가기

이벤트 둘.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화면 캡처하기

이벤트 상품 커피 음료 쿠폰
이벤트 참여방법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다.
2. 채널 추가화면을 캡처한다.
3. QR코드를 스캔 후 이름, 연락처, 화면 캡처 사진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누른다.

▲ 이벤트 바로가기

kwater.or.kr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시민과 함께 하는

2022년 제3차 K-water 옥외글판 문구 공모

| 공모주제 | '결실', '기대' 中 택 1(1인 1작품, 공백 제외 30자 이내)

| 공모기간 | 2022. 8. 8(월) ~ 8. 21(일)

| 공모대상 | 전 국민 누구나

| 참여방법 |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보내실 곳 : **happykwater@kwater.or.kr**)

* 필요서류 다운로드 : K-water 소통플랫폼 단비톡톡(www.kwater.or.kr/danbitoktok) 내 콘텐츠라운지 - 대국민 공모전 - '2022년 제3차 K-water 옥외글판 문구 공모'

| 결과발표 | 2022년 9월 예정(수상자는 개별 통지)

| 시상내역 | 최우수작(1편)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우수작(3편) 온누리상품권 5만원 수여

문의 K-water 옥외글판 담당자 (☎ 042-629-2863)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K water